

西厓 柳(成龍) 先生의 文學 世界

金 時 晃*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3) 新意論 |
| 2. 先生의 詩文 및 文學 論著 | 4) 忠君憂國 |
| 3. 文學論 및 思想 | 5) 詩之好否 意趣高下 |
| 1) 詩敎論 | 6) 文藝經典 爲木の 文章 |
| 2) 以學爲詩論 | 4. 맺는말 |

1. 머리말

西厓 先生 文集은 仁祖 10年 1632에 本集 20卷 10冊이, 선생의 第三子인 修巖 柳紆公에 의해 陝川에서 木版本으로 刊行되었고, 그후 別集 4卷 2冊과 年譜 3卷 2冊이 刊行되었다. 懲愆錄은 仁祖 20年 1642에 당시 義城縣令이었던 滄浪 嚴鼎壽公에 의해 16卷 6冊 木版本으로 간행되었다.

그후 純祖 34年 甲午 1834에 河回 玉淵亭에서 重刊되었고, 1958년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에서 影印本 1冊으로 合本 간행하였으며, 1990년 民族文化推進會에서 韓國文集叢刊 52에 影印 收錄하였다. 그리고 1991년 西厓先生紀念事業會에서 續集篇 別著篇 附錄篇 追錄篇 史料篇 資料 등을 追加 總網羅하여 西厓全書 4卷을 간행하였다.

이와 같이 선생의 文集은 대단히 龐大하며, 따라서 내용도 多様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의 論著에 대한 연구는, 임진왜란을 중심으로한 政治 軍事 經濟面의 일부가 약간 이루어 졌을 뿐이고, 그 외 학문이나 문학에 대해서는 별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 52 所載 西厓集 20卷 및 別集 4卷 및 西厓全書 卷二 續集篇을 中心으로 하여, 西厓 柳先生의 文學 世界를 概觀하고 文學 思想을 考察함으로써, 그것이 선생의 政治와 教育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反映되었는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오늘날의 政治와 教育 현실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 보는 것이 本稿의 목적이다.

* 慶北大學校 漢文學科 敎授

2. 先生의 詩文 및 文學 論著

선생의 詩文과 문학에 관한 論著는 매우 많다. 선생의 文集 과 別集 및 續集에 現傳하는 詩와 文學에 관한 論著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詩 : 文集 卷 一에 〈古意(丙寅)〉等	139題 159首
同 卷 二에 〈汝南多賢上〉等	102題 132首
別集 卷 一에 〈春日定州公解閑居偶題〉等	152題 159首
續集篇에	298題 339首
計	691題 789首

2) 文學 論著 선생의 文集, 別集, 續集에 있는 文學에 관한 論著를 가려내기란 매우어려웠다. 奏文 疏 劄 書狀 啓辭 銘文 祭文 碑碣 墓誌 箴銘 등을 일단 제외하고, 書 序 記 跋 論 등과 雜著 중 문학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리되 쓰는 내용을 다 검토하지 못하여 제외하였다. 그 대략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文集 卷 十五	雜著 : 詩教說 鳶飛魚躍 離騷 詩意 寧越聞杜鵑詩
文集 卷 十七	序跋 : 許荷谷(筠)朝天錄序 書先君子詩帖後
文集 卷 十八	跋 : 書亂後詩稿後
別集 卷 四	雜著 : 僧人能詩 女子能詩 李嶠詩 時雨山人
同	跋 : 跋蘭雪軒集 書朱子感興詩卷後
續集篇	拾遺 : 以學爲詩說 〈月課〉

3 文學論 및 思想

1) 詩教論

선생의 詩教論에 관한 글은 長文의 〈詩教說〉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단편적인 글들이 있다. '詩教說'에 대해서는 필자가 내용을 분석하여 論文으로 발표한 것이 있기 때문에 張皇한 言及은 하지 않는다. 내용은 대략 '聖賢의 重詩教' '詩可以怨'에 對한 辯論' '詩教의 中庸' 등에 대한 것이며, 처음 일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孔子曰 興於詩 又曰 不學詩無以言 又曰 詩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遠之事君 邇之事父 聖人之重詩教也 如此’¹⁾

1) 《文集》 卷 十五, 雜著 〈詩教說〉.

拙稿 “西厓 柳(成龍) 先生 詩教說 研究” 東方漢文學 第10輯, 東方漢文學會, 1994.1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흥기한다.' 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 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시는 볼 수 있으며, 무리 지을 수 있으며, 원망할 수 있으며, 멀리는 임금을 섬기고 가까이는 부모를 섬긴다.' 하였으니, 성인이 시교를 중히 여겼음이 이와 같았다)

또 〈李嶠詩〉라는 글에서 李嶠의 詩를 특별히 좋아한다 하고, 〈汾陰行〉 末句는 읽는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다 하며, 詩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 시킴이 매우 깊다고 하였다. 본문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古人懷古之作多矣 余絕愛 李嶠²⁾ 〈汾陰行〉 末句』

山川滿目淚沾衣 富貴榮華能幾時
不見至今汾水上 惟有年年秋雁飛

句『讀之 使人墮淚 詩之感人深矣³⁾』

〈鳶飛魚躍〉이란 글에서도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鳶飛魚躍⁴⁾ 子思說道理 無所不在⁵⁾ 卽詩所云 行物有則者是也 故在父子則 有父子之道 在君臣則 有君臣之道 以至夫婦也 兄弟也 朋友也 萬事萬物 無不皆然 此皆天之所命 人但戒懼謹獨 日有所事 而無忘其所爲事而已 大豈容一毫私意 有所作爲 假說於其間哉 此卽孟子必有事焉之意⁶⁾ 而程子 活潑潑然緊 爲人之意⁷⁾ 蓋可知也⁸⁾』

(하늘에 술개가 날고 물 속에 고기가 뛰는다' 한데 대해 자사는 '도리는 없는 곳이 없다고 말하였다' 하였으니, 곧 시경에 말한 '사물이 있는 곳에 법칙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식의 도리가 있고, 임금과 신하에 있어서는 임금과 신하의 도리가 있고, 부부간이나 형제간이나 봉우간이나 모든 사물이 다 그렇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이것은 다 하늘이 명한 것이다

사람은 다만 홀로일 때 경계하고 조심하고 삼가서, 매일 일이 있을 때는 그 하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 뿐이니, 어찌 털끝 만큼이라도 사사로운 뜻을 용납해서, 하는 일에 거짓이 있을 수 있겠는가

2) 李嶠 唐贊皇人 字 巨山 富才思 前與王勃 楊炯 接 中與崔融 蘇味道 齊名 晚爲文章宿老 學者取法焉 《李嶠雜詠》二卷.

3) 《別集》 卷之 四, 雜著 〈李嶠詩〉

4) 詩經 大雅 旱麓 『鳶飛戾天 魚躍于淵』 자연스럽게 하늘에 술개가 날고, 물속에 고기가 뛰노는 것과 같은 天地 造化의 작용이 奧妙함을 이름

5) 中庸 十二章 3에 『詩云 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 註에 『子思引此詩 以明化育流行 上下昭著 莫非此理之用 所謂費也 然 其所以然者 則非見聞所及 所謂隱也』 라 했다

6) 孟子 公孫丑 上2 『必有事焉而 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7) 中庸 十二章 鳶飛戾天 註에 『程子曰 此一節 子思喫緊爲人處 活潑潑地』라 했다.

8) 《文集》 卷十五, 〈雜著〉 鳶飛魚躍.

이것은 곧 맹자의 '반드시 종사하는 바가 있다'는 뜻이며, 그리고 정자의 '자사께서 요긴하게 사람을 위한 것으로 활발발하다' 하였음을 대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생은 詩를 배움으로써 自然의 理致와 인간의 도리를 배우고 깨닫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 사물의 이치는 물론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천명인 부자간의 도리, 군신간의 도리, 부부간의 도리, 형제간의 도리, 붕우간의 도리를 털끝 만큼의 거짓이나 함부로 함이 없게 한다 하였다.

2) 以學爲詩論

선생은 月課로 지어 바친 〈以學爲詩說〉⁹⁾ 이란 글에서 '以學爲詩'에 대해 다음과 같은 論旨을 폈다.

‘羅氏 鶴林玉露說¹⁰⁾ 趙呂父之說 有曰 古人以學爲詩 今人以詩爲學 臣讀之 未嘗不慨然而嘆 以爲知本之論也 夫以學爲詩 以詩爲學 何以異 曰 以學爲詩者 務其實而 文在其中也 以詩爲學者 急於末而 本有所不暇也’

(羅大經의 鶴林玉露說 趙呂父의 說에 말하기를 ‘옛 사람은 학문으로써 시를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시로써 학문을 한다’ 했습니다. 신은 읽고 감개해서 탄식하지 않음이 없어, 근본을 논할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대개 학문으로써 시를 하는 것과 시로써 학문을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학문으로써 시를 하는 사람은 그 실상에 힘써으로써 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며, 시로써 학문을 하는 사람은 말단에 급급해서 근본을 행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宋나라 때 사람 羅大經의 鶴林玉露에 있는 詩說을 인용하여 王에게 以學爲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단의 문예에 급급하지 말고 진실하게 근본에 힘써야 한다고 아뢴 것이다. 그리고 이어 君予의 學과 粹然出正한 歌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獻議하였다.

‘稟天地之秀氣 抱五常之正理 修之爲道德 發而爲事業者 君子之學也 由其操存涵養之功 著於言動 事爲之際 故性情所感 形諸歌詠 莫非可師可法 而粹然一出於正矣 初豈用力爲之哉’

(천지의 빼어난 기운을 타고 나 오륜의 바른 이치를 포용하고, 도덕을 닦아 발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군자의 학문이며, 마음을 굳게 가지고 함양하는 공부를 함으로써, 이것이 말과 행동 및 일을 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성정의 느낀 바가 가영으로 나타나, 스승이 되고 법이 될지 앎이 없이, 순수함이 한결같이 바르게 나타

9) 《西崖全書》 卷二 續集篇 拾遺 雜著

10) 鶴林玉露: 書名 凡十六卷. 宋 羅大經 撰. 其體例 在詩話 語錄 小說之間 分天地人 三集 小引 名朱子 張栻 眞德秀 魏了翁 楊萬里之語 竝推重 陸九淵 其旨 在於文章道學 二者多因事抒論 不以記事爲主 尤略於考證 見四庫提要 子 雜家類.

나는 것이니, 처음부터 어찌 힘쓴다고 되는 것이겠습니까)

3) 新意論

詩에 있어서 新意 문제는 옛날부터提起되어 온 듯하다. 고려 시대의 李奎報나 崔滋 등이提起한 것은 주로 剽竊에 대한 반론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¹⁾ 선생도 詩作에 있어서의 新意를 아래와 같이 主唱하였다.

‘余不能詩 然略解詩意 大概 詩當以清遠沖澹 寄意於言外爲貴 不然則 只是陳腐語耳 古今絕句中 如李白

洞庭西望楚江分 水盡南天不見雲
日落長沙秋色遠 不知何處弔湘君

眞有千萬里 不盡之意 卓乎不可及 其次 如劉禹錫詩

春江月出人堤平 堤上女郎連袂行
唱盡新詞權不見 紅霞映樹鷓鴣鳴

亦絕唱 讀之令人 神氣敘暢 而人提風景 若在眼前 吾東人詩 氣象局促 難可議此 惟 李白 題惠州白雲寺詩

池面沈沈水氣昏 夜深魚躍枕邊聞
明宵泊近驪江月 竹嶺橫天不見君

語頗自然而有遠致 非他人學詩所及也¹²⁾

清遠沖澹은 陳腐語의 反對이고, 言外에 뜻을 부친 작품들은 新意가 항상 그 속에 나타나고 있다.

人道難從口耳傳 此心隨處自悠然
靜觀軒外千條柳 春入絲絲不後先¹³⁾

27세 때 定州로 覲省次 가서 지은 것으로 前聯이 道學的 意想에서 나온 敎說調의 句節인데, 後聯이 그것을 받아 柳條春色의 景致를 묘사하면서도 前聯의 뜻을 斧鑿의 痕迹 없이 잘 融合시켜 놓은 것이다.

11) 全奎人, 《韓國古典詩學史》 弘盛社 1980, 74면

12) 《西厓集》 卷十五, 〈雜著, 詩意〉

13) 《文集》 卷一 詩, 〈靜觀軒春日有感〉

細雨春江上 前山淡將夕 不見意中人 梅花自開落¹⁴⁾

前聯이 宋元 山水畵의 畵意를 鮮明히 담은 것으로, 後聯에서 그 畵中の 主人公인 自身の 存在를 浮刻함이 없이 意中人을 그리는 가운데, 세월의 흐름을 梅花의 開落으로 象徵한 것이다. 이 意中人은 아마 先生의 學問과 經綸을 이어나갈 사람, 平素에 막연히 希求하던 사람이 아닌가 여겨진다.¹⁵⁾

4) 忠君憂國

선생의 文學 作品은 모두 忠君憂國으로 一貫되어 있다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선생의 평생 履歷을 보면 쉽게 斟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一段을 들어 본다.

‘壬辰 余扈駕義州 一道安東 省太夫人 踰竹嶺 至原州新林院 又有旨 姑留本道 約東諸將 遂自新林 還抵淸風 登寒碧樓 感事興懷 情見于辭 時車駕駐海州

落月微微下遠村	지는달 희미하게 먼마을로 넘어가고
寒鴉飛盡秋江碧	가마귀 푸른 강에 한없이 날아가네
樓中宿客不成眠	누각에 머무는 손 잠 이루지 못하고
一夜霜風聞落木	온 밤 서리 바람에 낙엽소리 들리네
二年漂迫干戈際	두해동안 전쟁중에 이리저리 다니는데
萬計悠悠頭雪白	온갖계책 걱정하며 ¹⁶⁾ 머리만 희어졌네
哀淚無端數行下	서러운 눈물을 끝없이 흘리면서
起向危欄瞻北極 ¹⁷⁾	난간에 기대어 북극만 바라보네

壬辰倭亂이 일어나 義州까지 扈駕했다가 남으로 내려와 전쟁을 치르던 중 安東 고향에 가서 太夫人을 뵈고, 北向하여 다시 竹嶺을 넘어 原州 新林院에 이르렀을 때, 또 아직 本道에 머무라는 임금의 명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장수들과 약속을 하고 新林으로부터 도로 淸風으로 돌아와 寒碧樓에 올라 일어나는 感懷를 읊은 것이다.

다음 ‘感事’란 시를 본다.

‘社稷昔艱危	지난 날에 나라가 어려워서
奔鯨蕩溟渤	뛰는 고래가 바다를 뒤엎었네

14) 《別集》 卷一 詩, 〈題看竹門〉

15) 李佑成 《實是學舍散葉》 創作과 批評社, 1995.5 30. 〈西厓의 學問 方法과 新意論〉

16) 悠悠: 걱정하는 모양

17) 《文集》 卷一, 詩 〈宿淸風寒碧樓 并序〉

關門失鎖鑰	관문의 방비를 실수하여
列郡如破竹	여러 고을이 파죽의 형세였네
延秋呼白鳥	연추문에 가마귀 울부짓고
宮闕烟塵勃	궁궐안은 전장에 ¹⁸⁾ 휩싸였네
玉帛累遷次	옥련이 파친하는 누를 입어
六月巡沙磧	유월에 모랫벌 ¹⁹⁾ 을 헤메었네
寧知太師宅	어찌 태사 ²⁰⁾ 를 되신 집이
化作俗人窟	창인 ²¹⁾ 들의 소굴이 될줄 알리오
(六月平壤陷)	유월에 평양이 함락되어 적이 점거했다)
鴨水清瀾瀾	압록강물 넓고 넓어 맑은데
遼山明刮日	요동의 산들이 눈에 흰하네
當時狼狽甚	당시에 심히 낭패를 하여
事有不忍說	일이 차마 말할 수 없게 되었네
(時請內附渡遼)	그때 내부하기 위해 요동으로 건너가고 청했다)
天道竟助順	천도는 마침내 순리를 도왔고
岳王有聖德	우리 임금은 성덕이 있으며
民心不忘漢	민심은 한나라를 잊을 수 없어
至誠昭聖極	지성으로 황극 ²²⁾ 을 빛내었다네
使臣哭天庭	사신이 천자의 조정에서 울어
王師歲暮出	왕사가 세모에 출동하였네
白馬李將軍	백마 타고온 이여송 장군은
意氣吞海嶽	의기가 산과 바다를 삼킬듯
精神動天地	정신은 천지를 진동하고
長虹貫白日	긴 무지개 해를 꿰뚫었다네
(癸巳正月一日 師次肅川 白虹貫日 軍中云 勝賊之兆 . 계사년 1월 1일에 왕의 군사가 숙천에 당도했는데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으므로 군사들이 적을 이길 징조라고 하였다)	
鼓下箕城	한번 북울려 평양을 회복하고
再進麗京復	두번 진격하여 서울을 수복했네
長驅或不戒	승승장구 하다가 혹 경계치 않아
恃勝暫蹉跎	승리만 믿다가 잠시 차질 생겼네
窮隄勿勿搏	궁한 짐승은 치지말란 법이라
少緩非計失	잠간 늦춤은 계책 실수 아니라네
衆策極經營	여러가지 계책으로 경영을 다해
遊說資談舌	담설로써 달래려고 하였다네
(遣沈惟敬 誘賊出城)	심유경을 파견하여 적들이 성을 나가도록 권유하였다)
迺於四月末	그리하여 사월 말일이 되어

18) 烟塵 兵塵 전장의 티끌

19) 磧 모랫벌적.

20) 太師: 殷太師箕子를 가리킴

21) 俗人: 鄙人. 시골뜨기

22) 皇極 편파가 없는 中正의 길 天子가 세운 만민의 법칙

神京歸版籍 서울이 판적²³⁾으로 돌아왔네
 漢南道路通 한강 남쪽의 도로가 통하고
 嵩北妖氛豁 숭산 북쪽의 요기가 걷혔네
 乾坤再整頓 천지가 다시 정돈되고
 日月重煥赫 해와 달은 더욱 빛이 나네
 是歲月臨陽 이 해 시월달에²⁴⁾
 六轡回西極 임금의 수레가 서쪽에서 돌아왔네
 (十月車駕還都 : 십월에 御駕가 還都하였다)
 都人迎翠華 도성 사람들이 취화²⁵⁾를 맞이함예
 佳氣還金闕 상서로운 기운이 궁궐에 돌아왔네
 草草漢官儀 초라한 한관의 모습이요
 故老多垂泣 옛 노인들은 많은 눈물 흘렸네
 兩宮寄閭閻 양궁은 여염집에 머물었고
 百僚倚牆壁 백관들은 장벽에 의지 하였다네
 公私一空地 공사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九街腥氣拂 거리마다 비린내가 휩쓸었네
 鍾簴誰復聞 종거²⁶⁾는 또 누구에게 물울고
 淸廟生荆棘 청묘²⁷⁾에는 가시밭만 우거져 있네
 遺民脫黥劓 유민은 적의형²⁸⁾벌 벗어난 자가
 百千纔二一 천백에 겨우 하나둘일 뿐이고
 饑飢不能起 주리고 여위어서 일어나지 못해
 指口求餽粥 입을 벌리고 먹을것만 찾는다네
 花明紫殿陰 궁궐 뜰에는 밝은 꽃이 피었고
 草綠城南曲 성남 구비에는 풀들이 푸르르네
 所見無異物 보이는 것은 다르게 없고
 縱橫惟白骨 백골만 이리저리 흩어져 있네
 孤臣極無似 외로운 신하는 보잘것 없는 신세
 國事從顛覆 나라 일들은 뒤엎어져 있다네
 濫荷三接寵 외람되이 삼접²⁹⁾의 은총을 받아
 虛叨五鼎食 헛되이 오정식³⁰⁾만 차지 하였네
 承恩不能報 받은 은혜 갚지를 못했으니
 萬死有餘責 만번 죽어도 책임은 남으리
 驅馳戎馬間 전쟁터 군마 사이를 쏘다니며

23) 版籍: 토지와 인민 領土

24) 十月을 陽月이라함

25) 翠華: 비취의 깃으로 만든 깃대 곧 임금의 日傘

26) 簴: 북틀거, 鐘鼓枅

27) 淸廟: 周 文王의 靈殿, 殿廡 淸淨한 靈殿의 뜻 《詩 淸廟》 '於穆淸廟'

28) 黥劓: 자자할경, 墨刑在面 코베일의, 베일의.

29) 三接: 임금이 신하를 하루에 세번 접하는 것 《周易 晉卦》 '康侯用錫馬蕃庶 書曰三接也' (강후가 신하에게 말을 많이 줄 때에 대낮에 세번 만났다.)

30) 五鼎食: 《孟子》 榮惠士 卜16 '前以士 後以大夫 前以三鼎 後以五鼎歟' [註] 三鼎 士祭禮 五鼎 大夫祭禮

退勉輸筋力 있는 힘을 다 바치었다네³¹⁾
 風餐薩水岸 살수 가에서 비바람 맞았고
 夜宿坡州雪 파주 눈속에서 들잠을 잤다네
 戮積丘山重 허물은 산처럼 중하게 쌓였고
 效計絲毫蔑 효과로운 계책은 조금도 없었네
 治亂無定形 난을 다스림은 정한길이 없어
 人爲可以下 사람이 하는 일 점칠 수 있는 것
 永念陰雨初 길이 생각하니 난리난 처음에
 縑繆或末密 일처리가 혹이나 면밀하지 못했는가
 廟堂坐麟楨 조정에는 인원³²⁾들만 앉아 있고
 邊鄙多朽木 변방에는 썩은 군졸 뿐이었네
 人情有萬般 사람의 감정은 만가지로 달라서
 世議多翻覆 세상의 의논들은 번복이 심하네
 維綱既解紐 버리와 기강은 이미 풀어져 있어
 萬計歸虛擲 만가지 계책이 허사로 돌아가네
 千兵非所急 천명의 군사가 급한 것이 아니고
 將眞難得 하나의 장수를 얻기가 어려우네
 畫餅不可食 그림의 떡이란 먹을 수 없는 것
 金甌從此缺 금항아리³³⁾ 이에따라 이지러 졌네
 亡羊牢可補 양을 잃었으니 우리를 보수하고
 失馬廐可築 말을 잃었으니 마구를 고쳐야지
 往者雖已矣 지난 날은 비록 그러 했으나
 來者猶可及 오는 일은 그래도 해갈 수 있다네
 誰能陳此義 그 누구가 이런 뜻을 진술 하여서
 聞聞聞³⁴⁾ 하나하나 임금님께 들려 드리려나

이 詩는 五言이지만 90구나 되는 長篇이다. 千辰倭亂이 일어나 나라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며, 임금이 북쪽으로 파천하고 위급한 순간 순간을 맞이하는 감회가 어찌 이 뿐이겠는가 마는 詩로써 다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읽는 이에게 저절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하며, 선생의 애타는 憂國衷情이 여실히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시들은 대단히 많지만 지면 관계로 이만 줄인다.

다음 雜著 중에 있는 〈離騷〉란 글을 통해 朱子의 忠君憂國之心을 말하고, 이어

31) 退勉 민면, 힘쓸민 힘쓰.

32) 麟楨: 麒麟楨. 길만 그럴 듯하고 속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 楊炯이 늘 朝士들을 麒麟楨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지금 가짜 기린을 불리는 자들은 반드시 나귀에다가 탈을 씌워서, 그 가죽을 벗겨 버리면 다시 나귀가 된다' 했다 《朝野僉載》

33) 金甌: 甌土의 완고함을 비유함. 《南史》에 武帝가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금 항아리와 같아서 한 곳도 손상되지 않았다' 함

34) 《文集》 卷二詩 〈感事〉

高麗 때 鄭絃의 鄭瓜亭曲을言及함과 동시에 柳思菴 淑³⁵⁾의 臨命詩와 陶隱 李崇仁의 詩를 인용하여 그 歌詞의 悽怨함을 보임으로써 선생의 憂國表情을 헤아려 보게 했다.

‘朱晦菴晚年 註楚辭 其意深矣 盖自度道終不行 而世道人心 日趨於汚下 吾之忠君憂國 惓惓不忘之誠 無可告語 而平日之稍 以名節自礪者 莫不變遷而從俗 於是 有感於屈子之詞 而隔千載爲知己友 發揮於離騷 所謂可與識者道 難與俗人言者 眞不誣矣 新羅時 有鄭絃 謫居東萊 戀君作歌詞 號鄭瓜亭曲 麗末 柳思菴淑 臨命作詩曰

他鄉作客頭渾白 到處逢人眼不青
清夜沈沈滿窓月 琵琶一曲鄭瓜亭

其詞悽怨 李陶隱 崇仁詩云

琵琶一曲鄭瓜亭 遺響悽然不忍聽
俯仰古今多少恨 滿簾疎雨讀騷經³⁶⁾

그리고 또 아래와 같이 〈時雨山人〉이란 글에서, 洪渾³⁷⁾의 詩를 인용하여 激昂된 傷時의 감정을 眞率하게 잘 나타내었다.

‘洪渾字渾元 唐城人 … 渾元 直上堂踞席 往往遺溺席上 意到則歌 音節激昂 余所聞則 每一曲而屢歌之 其詞曰

昔時苟如此 此容寧自持 吾心化爲絲
曲曲皆成結 欲解又欲解 不知端在處

歌罷 或不交一語而起 人莫測其意 大概傷時之意爲多³⁸⁾

5) 詩之好否 意趣高下

詩를 評價함에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고, 또 사람에 따라, 時代에 따라 詩를 評價하는 것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옛날부터 많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선생은 〈書亂後詩稿後〉라는 글에서 詩의 좋고 나쁨에 대해 그 평가 기준을 辭

35) 柳淑: 恭愍王때 사람으로 諡號는 文僖公, 趙日新 奇勲 등과 대결, 紅巾賊 討伐에 有功, 辛 屯에게 暗殺됨.

36) 《文集》 卷十五 雜著 〈離騷〉

37) 洪渾: 中宗 36(1541)~宣祖 26(1593), 字 渾元, 號 時雨堂, 退溪 門人, 西厓 先生과 莫逆한 親舊 毛辰倭亂 때 副提學으로서 王을 扈從.

38) 《別集》 卷 四, 雜著 〈時雨山人〉

의 正拙에 두지 않고 意趣의 高下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古人들은 晉나라 陶潛과 唐나라 韋應物을 詩家의 正宗으로 삼았다’ 했고³⁹⁾, 柳子厚 역시 沖遠하나 다만 鍛鍊太過일 뿐이며, 우리나라 詩人으로는 李陶隱을 가장 좋아한다 했다.

‘余不能詩 惟略解詩意耳 詩之好否 在意趣高下 不在辭之正拙 譬如人羹玄酒 寓至味於無味中 一下五味 非不悅口 終是偏者勝耳 古人以陶韋 爲詩家正宗 如子厚雖亦沖遠 只是鍛鍊太過耳 東方詩人中 余最愛李陶隱 其餘皆狂怪怒罵 肥膩腐爛語 詩意索然 此可與識者道 難與俗人言 惟治心養性者得之 人子以思無邪 三字 當 三百之旨 嗚呼其遠矣 若余者思既荒雜 故其發於言者如此 可愧也已 亦可懼也已 不能盡去者 所以忘吾病而求藥石於 知己之君子也 覽者恕焉’⁴⁰⁾

또 女子로서 詩에 能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許蘭雪軒의 시를 극구 찬양했으며, 僧人으로서는 淸虛子 休靜을 舉論했다.

‘一日 美叔弟端甫 携其亡姊所著 蘭雪軒藁者見示 余駭而曰 異哉 非婦人語 何許氏之門 多奇才也 余於詩學 憎也 姑則其所見而評之 立言造意 如空花水月 瑩澈玲瓏 不可把玩 鏗鏘則圻壤相觸也 崢嶸則蒿華競秀也 秋葉掇水也 春雲滿空也 高處出漢魏 其餘步驟乎盛唐 至其感物興懷 憂時閔俗 往往有烈士風 無一點世間輩血 柏舟東征 不得專美於前矣 余謂端甫 歸且收拾 而寶藏之 備一家言 勿使無傳焉可也 萬曆庚寅仲冬 西厓書于漢陽之寓舍’⁴¹⁾

‘近世女子能詩者數人 其一許氏 號蘭雪軒 一 才調出群 今錄二詩

錦帶羅衣積淚痕 一年芳草怨王孫
瑤琴彈罷江南曲 雨打梨花畫掩門

又 月樓秋盡玉屏空 霜打蘆洲下暮鴻
瑤瑟一彈人不見 藕花零落野塘中

皆脫洒可愛 絕似唐韻 他篇多類此 年二十餘終’⁴²⁾

‘今世僧人中 有休靜 頗解禪家學 有聲於縉流 且善詩 自號淸虛子 嘗在香山 有一絕云 萬國都城如蟻垤 千家豪土若醯醢 一窓明月淸虛枕 無限松風韻不齊 有高蹈物外俯視塵寰之意 亦一時意會作也’⁴³⁾

39) 陶潛 韋應物 兩人 詩風 相同 並開澹古遠 [梅堯臣 詩] ‘陶韋比格吾不私’ [元好問 和党承旨 雪詩] ‘吾愛陶與韋 冷然扣水玉’

40) 《西厓集》 卷 十八, 跋〈書亂後詩稿後〉

41) 《別集》 卷 四, 〈跋蘭雪軒集〉

42) 《別集》 卷 四, 雜著〈女子能詩〉

43) 《別集》 卷 四, 雜著〈僧人能詩〉

6) 六藝經典 爲本の 文章

선생의 文章 또한 보통의 境地는 넘어서는 것 같다. 다음과 같이 李敏求의 文集 序文에 나타난 평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六藝經典을 根本으로 삼고, 性理의 根源을 發하며 日用之實에 資한 文章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문장의 正道인 것이다.

‘柳相國 日坐政事堂 招郎吏 捉笏疾呼 屢數十紙 未嘗更榮寵字 卽無論郎吏腕痛 他宰相 俱袖手聳觀 草創潤色 唯柳相國 兼之有裕 柳相國 眞異人哉 —— 公之文 以六藝經典爲本 發乎性理之原 資乎日用之實 卒澤之精義 純和粹如也 謂雲漢天章也 布縷紵絮 寒可衣也 謂金玉寶貝耶 菽粟梁稷 飢可食也 江河之決 瀉千里而 本源不竭 風雨之集 頃刻滂濞而 溝澮皆盈⁴⁴⁾ 出於己者 無窮而及乎物也 普洽如是而已矣 嗟乎甚矣天之欲保護扶持 人國家也 將有卒然 傾覆之患 發於盈成 中否之後 必爲之篤生品毗 界之以之才之德 黼黻之文 使彌綸天步而 逌續邦命焉⁴⁵⁾’⁴⁶⁾

4. 맺는말

先生の 遺文中 文學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생의 말대로 蠡測하여 보았다. 선생의 文學을 만에 하나도 제대로 살피지 못했음을 自認하면서, 새삼 선생의 深奧한 文學論과 淸遠한 詩文들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한다. 앞으로 더욱 깊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 하겠다는 생각 뿐이다.

선생의 文學은 선생의 學問, 政治, 敎育 등 모든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다. 文學 자체를 위한 文學이 아니고, 文學을 통하여 학문, 정치 및 敎育을 실현하려 한 것이다. 修己 治人의 도를 실천한 典範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대의 학자 정치인 敎育자 文學가 들은 선생의 이러한 사상과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

44) 《孟子》‘七八月之間 雨集溝澮皆盈’ 전담 사이의 도량에 비물이 넘침

45) 述: 맞을아 《詩》‘予逌續乃命于天’

46) 李敏求, 文集 序文.